

PRnews 73 @ Ham mail. HET

Final

인생을 이모작하라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위계망이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이 말은 생물학자인 서울대의 최재천 교수가 최근에 펴낸 책의 제목이다. 2020년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하는 최고령사회를 진단하고 사람들이 고령화 경보에 겁먹고 그 준비를 서두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난 40년간 20년이 늘어나 80세가 넘었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90세 나아가서는 100세 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최 교수는 생물학자답게 100세 인생을 반분해서 번식기와 번식후기로 구분하면서 번식후기를 단순한 잉여시기로서가 아니라 번식기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생을 철저하게 이모작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전에는 ‘은퇴’ 또는 ‘정년’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 변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긴 후기의 삶을 위해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와 함께 세대교체의 바람이 갑자기 불어 닥치면서 6070세대는 물론 4050세대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생업에서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에서마저 밀려나면서 무력해지는 나락으로 몰리는 가운데 새로운 활로 찾기에 골몰하던 차였다.

거의 21

사람들이 자기 평생의 생업에서 정년퇴직을 당하면 예상 못한 바도 아니지만 삶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이 더욱 심하게 겪는다고 한다. 젊었던 현역시절에 준비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생업 외에도 평소 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그리고 제도가 퇴출시킬 수 없는 일거리들로 단련이 되어있어서일 것이다. 퇴직 후의 삶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었던 셈이다.

30년 또는 40년간의 제2의 인생은 덤으로 적당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야말로 의무감이나 구속에서 벗어나서 삶의 보람을 찾는 ‘진짜 삶’을 살아야 한다.

최근 세대교체바람으로 현직에서 떠난 세대들은 각자 앞으로 살아야 할 제2의 인생을 위해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신종업종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들이 찾은 신업종의 종류가 다양하면 할수록 이 사회가 더욱 기름지게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경륜과 의지야말로 고령사회에서 겪게 되는 다각도의 사회문제를 해결해내고 밝은 미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큰 자산이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사회가 몰고 올 사회의 위기상황은 개개인의 제2의 인생의 준비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사람들이 생의 절반인 긴 세월을 낙오자로 살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이 화급하다.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에 크게 기대하며 최 교수의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빌어본다.